

2024년 8월 4일 “자녀들의 의기를 세워줍시다”(골 3:21)

변화가 극심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인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1] 언제나 자식 걱정

출애굽기/민수기에는 출애굽 세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들은 10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 군사들이 수장된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 음식, 안전이 결핍된 상황을 만나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들은 자식들 걱정으로 더욱 불안하여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합니다(민 14:3). 이에 하나님은,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14:31). 그리고 걱정에 빠졌던 부모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것은 처한 환경을 어떤 눈으로 보고 해석해야 할 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더하여 그들은 성경에서 훌륭한 믿음의 세대로 기록됩니다(삿 2:7). 한편, 부모세대는 반면교사 역할 밖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2] 광야 부모들의 약점

광야 부모들은 자기들의 환경과 조건은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집트로 복귀하길 원했습니다(민 14:3). 이러한 그들의 고정관념은, 주님께서 광야생활을 극복하도록 주시는 힘을 차단했고 어떤 소망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이 사람의 생각을 장악하면 삶의 힘을 잃습니다.

90 년대에 출현한 ‘서태지와 아이들’이 새로운 대중음악의 장르를 선보일 때 기성세대로부터 이것은 음악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중음악에 대한 고정관념이 확신에 찬 비하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2 세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화합을 어렵게 하고, 무엇보다 친구의 통합적 형성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3] 자녀들의 의기

* 의기 - (사전적 의미) 기세가 좋은 적극적인 마음, 장한 마음, 타고난 기개

아이들은 만 두 살 전부터 자의식을 갖게 되고, 그 후로는 정체성, 사회성, 상호작용, 감정공감, 도덕성 등 중요한 요소들이 발달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돕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러니 성장 초기부터 자의식에 의한 아이의 자기 주장과 부모의 훈육은 부딪힐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군인의 사기와 군기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하듯이 자녀들의 의기와 훈육 또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인격적인 성품과 관계의 성장 과정 속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의기를 세워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서는 어른의 고정관념을 주장하지 않고 지켜주고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고정관념 속에는 옳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만으로 온전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는 없음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 부모 세대가 보여준 것 같이 '우리 아이들 큰 일 났다. 다 망할 것이다' 라는 식의 조급한 말과 행동을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안정감을 누리는 때는 부모가 여유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내주는 지지 안에 머물고 있음을 느낄 때가 아닐까요?

그 때 아이들은 부모 말을 마음으로 듣고 따를 것이며, 옳은 말씀을 수용하며 자신의 의기가 자라는 양육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양육의 길이 모든 가정에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내가 양육을 받아온 과정 속에서 양육자로부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 내가 양육자로서 성경적으로 가장 필요한 성품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